

CJ대한통운, CJ로킨 등 매각설 이후

사업재편·건전성 강화에 매각 달려... 건설부문은 '사실무근'

2015년 중 콜드체인 회사 M&A
글로벌 물류회사 도약 핵심 계열사
매각 현실화시 10억 달러 예상

CJ대한통운을 놓고 중국 핵심 계열사인 CJ로킨 매각설과 주요 사업분야 중 하나인 건설부문 매각 소문까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국내 1위 물류회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앞서 CJ로킨 매각 추진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일부 조정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건설부문 매각 추진 보도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매각설에 휩싸인 CJ로킨은 중국내 1위 콜드체인 물류회사로 2015년 CJ대한통운 품에 안겼다.

CJ로킨은 온도·습도 조절이 생명인 의약품, 화학물, 반도체 등을 실어나르는 400대 가량의 콜드체인 차량과 26만㎡ 규모의 온도조절 창고를 보유하고



CJ로킨 냉동냉장 차량.

/CJ대한통운

있다.

2004년 당시 중국에 처음 진출한 CJ대한통운은 2010년 상하이에 헤드쿼터를 세운 이후 중국에서만 대단위 프로젝트 전문 물류기업 스마트카고(2010년)와 로킨(2015년)을 잇따라 인수했다. CJ대한통운은 2016년엔 세계 3대 가전 기업인 중국 TCL그룹과 물류 합작법 CJ스피덱스를 설립해 전기·전자 물류시장에도 추가 진출했다.

중국사업을 위해 직접 진출한 본부 외에도 3개의 물류회사를 인수·합병(M&A)해 함께 운영해온 것이다.

이 가운데 CJ로킨은 CJ대한통운이 글로벌 물류회사 'TOP 5'에 오르기 위한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매각설이 흘러나왔다.

CJ대한통운은 CJ로킨 인수 당시 국민연금과 함께 4550억원(3억9200만 달러)을 투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로킨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매각가격은 약 10억 달러(약 1조1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순매각 대금은 약 3억8000만 달러, 매각 차익은 1억2000만

〈2013년 이후 CJ대한통운 M&A 현황〉

시기	이름	국가
2013.4	CJ 스마트카고	중국
2015.12	CJ 로킨	중국
2016.8	CJ 스피덱스	중국
2016.9	CJ 센추리 로지스틱스	말레이시아
2016.11	대형물류센터 인수	인도네시아
2016.12	CJ 트랜스네셔널 필리핀	필리핀
2017.4	CJ 다슬	인도
2017.4	CJ ICM	UAE
2017.10	CJ 제마렘	베트남
2018.6	DSC로지스틱스	미국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CJ대한통운이 CJ로킨을 당장 매각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내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계열사가 있는 만큼 대체재가 충분하고, 일부 사업 매각을 통한 자본 확충과 택배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자금 확보도 가능한 터라 매각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CJ로킨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 회사측이 답변한 공시내용을 보면 매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매각 자금으로 차입금을 갚고, 늘어나는 택배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유분을 마련하는 등 매각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CJ로킨을 실제 매각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글로벌 물류사 톱 5' 진입을 위한 몸집 불리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이 건설부문을 놓고 새 주인을 찾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를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IB)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고 덧붙이면서다.

건설, 리조트, 골프장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해 7396억원의 매출과 27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 상반기엔 CJ대한통운 전체 매출 5조1654억원 가운데 6.7% 수준인 3442억원이 건설부문 실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공연 "제주 시내면세점 허가 즉각 철회"

광역지회장단 기자회견 진행
"2km 내 3곳 경쟁하는 상황 발생"

소상공인들이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조건부로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을 제주 지역에 신규 허용하자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제도운영위원회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2개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1개, 제주 1개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적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덧붙였다.

이에 이갑주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은 전면 입국 금지되어 전멸했고, 국내 관광객들도 연휴 떠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제주도 전체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기재부의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온 제주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신규 시내면세점은 사실상 대기업이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대기업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제주도 현지의 의혹의 목소리도 높을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지난 4월 폐업했고, 나머지 시내면세점 2곳마저 90%대의 매출 감소율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또다시 시내면세점을 허가한다면 반경 2km 안에 3곳의 시내면세점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화상태인 현재의 면세점에 또 하나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박주봉 음부즈만, 수출기업 규제해소 점검

박주봉 중소기업 음부즈만이 인천에 있는 수출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박주봉 음부즈만은 13일 인천 웨라톤 호텔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해소 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역 수출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했다.

코트라(KOTRA) 인천지원단과 함께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 소재 수출기업 9개사가 참석해 수출현장의 장애물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박 음부즈만은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을 부채비율



박주봉 중소기업 음부즈만이 13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진출 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공모전의 결선 무대에서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의 해법을 보여준 43개 스타트업들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

진하는 정책이다.

공모전에는 총 208개 스타트업이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월 과제별 2차 대면 심층평가를 통해 43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과제별 2차 대면 심층평가 내용은 드라마 시청률 예측, 공연 분야 실감형 가상현실(VR)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야구

중계 생동감 극대화, 짬뽕 맛 식별 센서 개발 등이다.

그 밖에 화장품의 2차 친환경 포장재 개발, 갈색 맥주 페트병 대체 소재 개발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기술 역량의 한계로 4개 스타트업들이 최종평가에 진출했다.

/백지연 기자



리큘 10월 특별 할인 행사 이미지.

/리큘

리큘

10월 특별 할인행사

리큘은 블렌더 'BS7'이 한국소비자로부터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리큘은 10월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 리큘은 우수 평가 제품인 블렌더 BS7 등 주방 및 생활가전을 최대 20% 특별 할인한다.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리큘 공식 네이버 스토어팝 등에서 진행한다.

휴테크

천안직영점 확장 이전

휴테크산업이 천안직영점을 확장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휴테크 천안직영점은 천안아산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 매장과 인접해 접근성 및 쇼핑 편리성 등을 갖췄다.

천안직영점에서는 플래그십 라인업 카이(KAI)부터 신규 출시한 ES9 블랙과 라움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휴테크 천안직영점 내부 모습.

/휴테크